

주현영, 주기자 넘어...“박은빈 보며 주연 책임감 배웠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단짝 활약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로 주연 우뚝

주현영(26·김현영)은 그저 연기만 하는 배우가 아니다.

쿠광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 1·2(2021~2022)의 ‘주기자’와 ENA 종방극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동그라미’ 모두 자신이 아이디어를 녹였다. 대학생 토론 배틀을 보고 짧은 정당 대표 캐릭터를 만든 게 사회초년생 인턴기자 주기자의 말바탕이 됐다. 동그라미와 ‘우영우’(박은빈)의 인사법인 ‘우투더 영투더 우’ ‘동투더 그투더 라미’ 역시 주현영 머리 속에서 나왔다. 그룹 ‘빅뱅’ 히트곡 ‘마지막 인사’ 가사인 ‘비투더 아이투더 뱅 뱅’을 보고 떠올랐다. 단순히 극본을 보고 대사를 읊는 게 아니라, 입체감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다.

“동그라미는 주기자를 연기할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다. 무엇보다 (주기자가 떠올라서) ‘시청자 물입을 켈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난 평소 시 눈치 보고 긴장도 많이 하는데, 동그라미는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내뱉지 않느냐. 성격과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은 않았다. 최대한 계산하거나 고민한 게 드러나지 않게 툭툭 하려고 노력했다. 이전에는 주기자로 불렸다면, 요즘은 길거리에 마주치면 다들 ‘동그라미’라고 해줘서 다행이다.”

이 드라마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영우가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주현영은 영우의 유일한 친구 동그라미로 분했다. ‘김민식’(임성재)이 윤영하는 탈보네 요리주점 아르바이트생으로 팔기 가득한 면모도 보였다. 단순히 주인공 친구에만 그치지 않고, 개성 강한 연기로 극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처음에는 ‘날 짓의 친구를 잘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특히 유인식 PD가 ‘주기자’ 캐릭터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고민이 적지 않았다. ‘주기자’ 연기할 때 쓴 재료를 잘 활용하면서도 그 캐리

터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였다. 이후 유 PD는 촬영감독에게 “동그라미는 야생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생각하라’고 주문, 캐릭터가 더 돋보일 수 있게 해줬다.

특히 첫 드라마에서 박은빈(30)을 만난 건 “천운”이라고 돌아봤다. “언니는 정말 교과서 같은 배우”라며 “사실 난 동그라미 역만 생각하고 달렸는데, 언니는 자신의 연기뿐만 아니라 주연으로서 극 전체 흐름과 기술적인 부분까지 챙겼다. 조명, 음향, 소품 등 모두 신경 쓰면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나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주연이 됐을 때 ‘언니가 한 행동을 다 시금 되새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내가 우영우를 연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잠깐 했다가 얼른 내려놔야”며 웃었다. “아직 영우 역을 할 수 있는 감각이 되지 않는다”면서 “문지된 작가님께서 언니를 캐스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 놓고 기다렸다고 하더라. 언니가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쌓은 경험, 시간, 노하우 모든 게 이 역할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이 드라마는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다. 1회 0.9%(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 17.5%로 막을 내렸다.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3위까지 오르며 해외에서도 인기몰이했다. (“우영우 인기는) 전혀 예상 못했다. 다른 배우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캐릭터 한 명 한 명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 아니냐. 작가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캐릭터 설계를 잘 해줬다”고 설명했다. “권민우(주종혁) 역도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못났지만, 결국 사람들이 미워할 수 없게끔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서 사랑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미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우영우 시즌제

제작을 확정된 상태다. 시즌2에선 동그라미의 러브라인 진전도 기대해 볼만 하다. “우리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다. PD님이 ‘시즌2 하면 나와 줄거야? 다들 대스타 돼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해, 일단 (강)태오 오빠가 군대 다녀와야 된다’고 했다”며 “시즌제를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기회다. 작품 자체가 좋아서 시즌2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동그라미는 민우에게 계속 미련을 가지고 질질 거리거나, 어느새 마음을 접고 덕질하고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상상했다.

주현영은 처음에 주기자로 대중에게 알려져 가끔 개그우먼으로 오해 받기도 한다.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2019년 단편영화 ‘내가 그리웠니’로 연기를 시작했고,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 시즌1·2(2019~2020) 등에서도 활약했다. SNL 코리아에서 수많은 정치인을 인터뷰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이로 축구선수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을 꼽았다.

“인터뷰한 분들 통틀어서 가장 맘을 많이 들린 분은 손흥민 선수다. 이전에 정치인사를 만났을 때는 실수할까 봐 두렵고 걱정돼서 인터뷰하고 나면 너털너털해지는 느낌이였다. 반면 손흥민 선수 인터뷰할 때는 충전받는 느낌이었다. 특유의 여유와 건강한 아우라가 있었다. 뭔가 엄청 거대한데 긍정적인 이라서 좋은 기운이 느껴졌다. 이전에 절절 매면서 힘들어한 인터뷰와 다르게 인상 깊었다.”

요즘 주현영은 데뷔 후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tvN 드라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주연으로 발탁된 상태다. 신입 매니저 ‘소현주’를 맡아 메소드엔터 총괄이사 ‘마태오’(이서진)와 호흡할 예정이다. 우영우 인기가 높아지면서 분량도 늘었다며 “주연 경험이 없으니 이 장면에서 내 것만 잘 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나?’ 고민한다. 이 드라마 촬영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언니 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한다. 파트너인 이서진 선배에게도 하나하나 물어보며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27일부터 쿠광플레이 드라마 ‘복학생: 학



점 A지만 사랑은 F입니다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SNL 코리아 시즌3 제작도 확정, 방송을 앞두고 있다. “SNL과 우영우를 만나기 전에는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고,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다.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까?’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일해야 할까?’ 고민한다. SNL 다음 시즌에선 새로운 걸 보여 줘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바닥이 나 질문 받을 때마다 말문이 막힌다. 이제 조금씩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공감 받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6년 만에 신곡

‘홀드 미 클로저’ 공개...엘턴 존 ‘타이니 댄서’ EDM 재해석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1)가 6년 만에 신곡을 발매했다. 13년 넘게 계속된 아버지의 부당한 후견인 제도에서 지난해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이후 첫 신곡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이날 영국 팝의 전설 엘턴 존(75)과 함께 듀엣곡 ‘홀드 미 클로저(Hold Me Closer)’를 공개했다. 존이 지난 1971년 발매한 대표곡 ‘타이니 댄서(Tiny Dancer)’를 EDM으로 재탄생시킨 곡이다.

스피어스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 시대 가장 고전적인 남자 엘턴 존과 함께 신곡을 내놓는다”고 예고했다.

앞서 스피어스는 자신의 친부 제이미 스피어스에게 강압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며, 그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벌여왔다. 2008년 스피어스의 후견인으로 지명된 제이미는 딸의 재산을 독점해왔다.

스피어스는 후견인 제도가 자신의 모든 꿈을 빼앗아갔다고 토로했다. 휴식은 물론 결혼, 출산 등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병원 심리에서 아버지가 괴롭고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 등도 강제를 했다고 폭로했다.

세계에서 영향력을 자랑하는 뉴욕 타임스가

강요당한 스피어스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프레이밍 브리트니’를 제작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11월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은 스피어스에 대한 후견인 제도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이후 스피어스는 이번 ‘홀드 미 클로저’로 활동 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스피어스는 1999년 정규 1집 ‘메이비 원 모어 타임’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2003년 발매한 4집 ‘인 더 존(In the Zone)’은 현재까지 명반으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정규 9집 ‘글로리(Glory)’ 이후 음악 활동은 멈춰 있었다.

스피어스는 이번 ‘홀드 미 클로저’ 발매 직전 소셜 미디어에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은 남편 데이비드 파니시로부터 스피어스와 힘을 합칠 수 있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스피어스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흥분했다. 그녀가 인기를 얻는다면, 훨씬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본인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M타운 라이브, 3년 만에 日서 공연...“첫날 5만 관객 호응”

3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글로벌 공연 브랜드 ‘SM타운 라이브(SMTOWN LIVE)’가 첫날 공연을 성료했다.

28일 SM에 따르면, 전날 일본 도쿄돔에서 ‘에스엠타운 라이브 2022 : 에스엠씨유 익스프레스 @도쿄(SMTOWN LIVE 2022 : SMCU EXPRESS @TOKYO)’가 막을 올렸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2019년 이후 일본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오프라인 공연이다. 당초 예정된 27일과 28일 양일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 29일 추가 공연이 결정됐다.

SM은 “첫날 공연 게이트 오픈 전부터 도쿄 돔 주변은 오피션 MD 및 뮤직 네이션 SM타운 메타패스포트(META-PASSPORT) 부스에 참여하고 공연장의 열기를 미리 느끼기 위한 현지 팬들로 가득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는 강타, 보아, 동방신기 최강창민,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효연, 사이니온유, 키, 민호, 엑소 수호, 시우민, 첸, 케이, 레드벨벳, NCT 127, NCT 드림(DREAM), 웨이션비(WayV), 에스파, 갓 더 비트(GOT the beat), 레이튼, 긴조, NCT 쇼타로, 성찬, SM루

추가 공연 결정, 오늘까지 도쿄돔 공연



키즈(ROOKIES) 쇼헤이, 은석, 승한 등이 출연했다.

각 팀별 히트곡 무대와 다양한 솔로 무대, 스페셜 컬래버레이션 무대, 본 공연에 앞서 진행된 DJ 무대 등을 선보였다.

더불어 이날 공연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도 객석에서 직접 관람, 공연 중 슈퍼주니어와

사이니가 관객들에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소개하자 반갑게 화답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이어 엔딩곡 ‘빛’ 무대 이후 NCT의 손에 이끌려 스테이지에도 깜짝 등장해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5만 관객은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투바투, 日싱글 3집 수록곡, 사흘 연속 ‘라인뮤직 차트’ 1위



그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투바투)가 일본

싱글 3집 수록곡 ‘기미자나이 다레카노 아이시카타’

최대 음원 사이트인 ‘라인뮤직 차트’에서 사흘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투바투는 지난 24일 선공개한 싱글 3집 수록곡 ‘기미자나이 다레카노 아이시카타(君じゃない誰かの愛の方・Ring)’로 3일 연속 라인뮤직 일간 톱 송 차트 정상에 올랐다.

‘네가 아닌 누군가의 사랑법’이라는 의미의 ‘기미자나이 다레카노 아이시카타’는 강렬한

리듬과 서정적인 기타 루프, 멜로디 라인이 돋보이는 팝 록(Pop Rock) 장르의 곡이다. 투바투의 첫 번째 일본 자작곡으로, 멤버 연준, 태현, 휴닝카이가 곡 작업에 참여했다.

‘기미자나이 다레카노 아이시카타’는 일본 아베마TV(ABEMA TV)에서 방영하는 ‘하트시그널(HEART SIGNAL JAPAN)’ 일본판 주제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